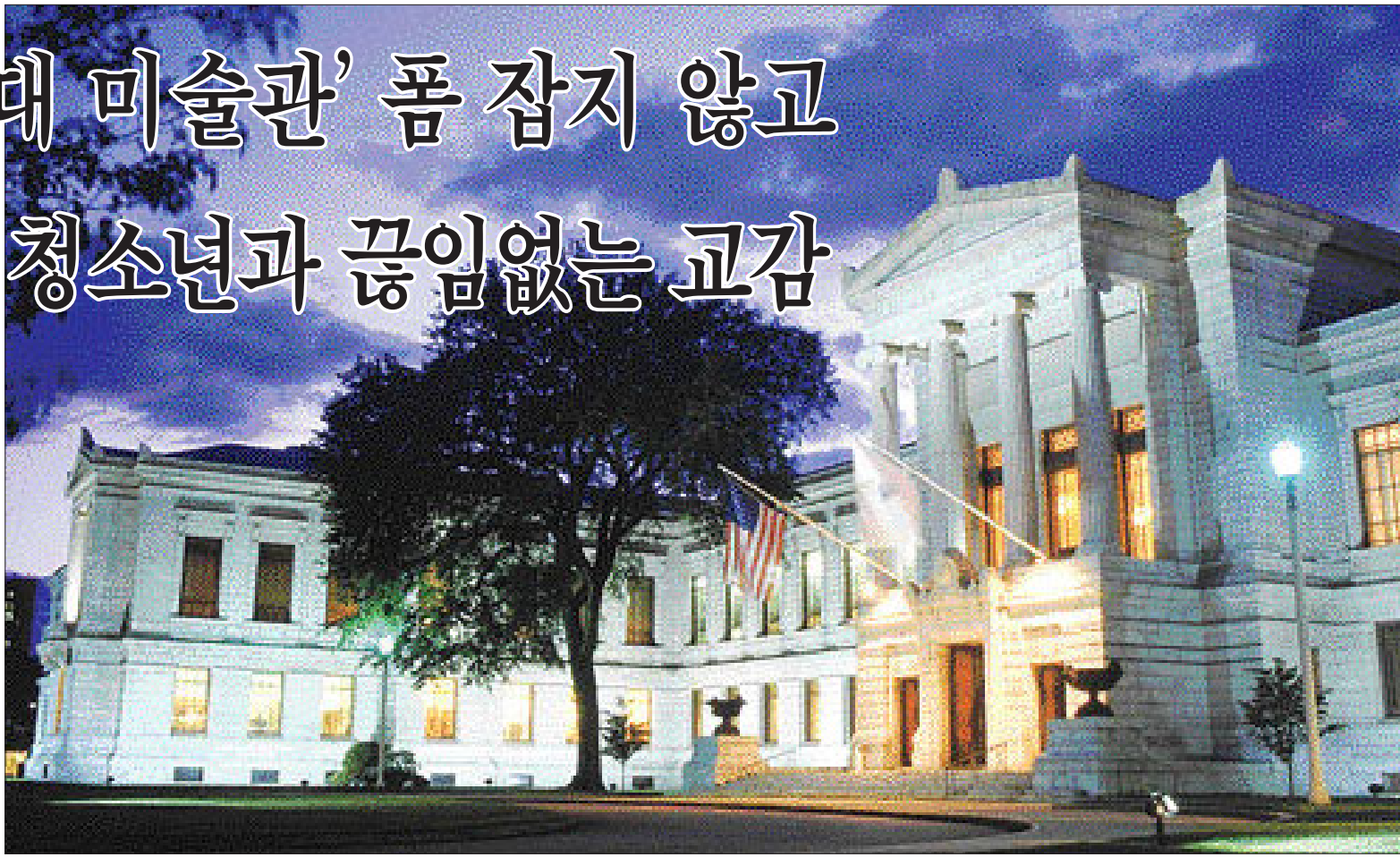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10 보스턴 미술관

'세계 4대 미술관' 품 잡지 않고 지역민·청소년과 끊임없는 교감



고대 그리스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전경. 하버드대학, MIT 등과 더불어 보스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다. <보스턴 미술관 제공>

보스턴의 첫 인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유럽의 고도'를 떠올리게 한다. 미 건국 2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관광 명소와 최첨단 고층빌딩들이 조화를 이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스턴 중심가에 위치한 하버드와 MIT, 보스턴 대학 등 세계적인 명문들은 보수적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일명 MFA)'은 보스턴 시내에서 전철로 20분 정도 거리는 헌팅톤 예비뉴에 위치해 있다. 미국의 유명 미술관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고대 그리스풍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학부·대학원 과정 '미술학교'... 대학생 끌어들여 소장품 45만점... 한국 문화재도 700여점 전시

보스턴 미술관은 미국 독립기념 100주년을 지난 1876년 7월4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보스턴 시민들은 미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사건(1773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술관 건립에 뜻을 모으고 '가보(家寶)'로 간직해온 진귀한 작품들을 가까이 내놓았다. 5천600점의 컬렉션으로 출발한 미술관

은 작품기증과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1909년 지금의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이 미술관의 보고인 컬렉션 45만점은 질적

에서 직접 발굴한 미이라를 비롯한 진귀한 유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스턴 미술관은 차별화된 컬렉션과 함께 수준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버드와 MIT 등 명문대학들이 가까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설, 대학생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인다. 대학생 회원으로 등록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미술관을 드나들 수 있으며 대학생에게 미술관을 개방하는 '대학의 밤(College Night)'은 예술강좌와 라이브 음악 등이 어우러져 40개 대학 3천2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할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술관은 부설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보스턴 미술학교'를 운영한다.

보스턴 미술관은 세계 4대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보스턴 미술관 홍보매니저인 아멜리아 캐리그먼(Amelia Carignan)씨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따른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미래의 미술관 고객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신나는 예술 모험(Artful Adventures)'은 미술관과 지역단체들이 연계해 꾸미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무대로 영화감상, 공작놀이, 드로잉 등 색다른 경험을 즐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을 위한 공간(family place)'이 펼쳐지며 방과후 수업, 스튜디오 강좌, 생일파티 등 흥미로운 행사들이 연중 시민들을 불러 모은다. /보스턴=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 보스턴 미술관의 걸작들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보이트의 딸들' 사전트에 부와 명성 안겨줘 '우리는 어디로...' 폴 고갱의 생애 최대 대작

수많은 컬렉션 가운데 존 싱어 사전트의 '에드워드 달리 보이트의 딸들'(The Daughters of Edward Darley Boit·1882년작)과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3년작)는 보스턴 미술관의 백미다. 미국의 인상주의 화가인 사전트 존 싱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1856~1925)의 대표작 '보이트의 딸들'은 파리에서 활동할 당시 그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미술 애호가 보이트의 아름다운 딸들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초상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의 걸작 '시녀들(Las Meninas·1656년작)'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림속의 주인공인 보이트의 딸들은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배경 때문인지 그 나이 또래 특유의 발랄함을 찾아볼 수 없다. 맨 왼쪽에 서있는 셋째 딸 메리 루이사(8살), 뒷편 일본 화병에 기대 채 심통이 난 표정의 첫째 플로렌스(14살), 언니와 반대로 화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둘째 제인(12살), 그리고 맨 앞에 인형을 안고 있는 막내딸 줄리아(4살)는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서로 고립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캔버스

를 감도는 분위기는 어두우면서도 우울함이 짙게 깔려 있다. 이들 자매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뒷편의 두 딸은 말년에 정신질환을 앓았다. 사전트가 초상화가로서의 탁월한 재능 뿐 아니라 이들 자매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 해안 덕분인지 이 그림으로 사전트는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다.

폴 고갱(Paul Gauguin·1848~1903)의 '우리는 어디로...'의 원제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사랑하는 딸 알리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납 태평양의 타히티에서 듣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한 뒤 있는 힘을 다해 그린 고갱의 생애 최대의 대작(139x375cm)이다.

울이 굵고 고르지 않은 자루용 마포위에 그린 이 그림의 구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는 탄생(과거), 삶(현재), 죽음(미래)의 3부작으로, 인간운명의 행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암시한다. 비록 이 그림을 유작으로 남기고 싶었던 고갱의 자살은 실패했지만, 그의 '회화적 유언'은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다. /박진현기자 jhpark@



존 싱어 사전트의 '에드워드 달리 보이트의 딸들'



미래의 미술관 고객으로 키우기 위해 개설한 '신나는 예술모험(Artful Adventures)'에서 초등학생들이 드로잉을 하고 있다.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a list of movies and a '영화안내' section.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일루서니스트' and '썸다'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En Cinema listing movies like '일루서니스트' and '썸다'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행복을 찾아서' and '그녀자작사, 그남자작곡'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Mudeung Cinema listing movies like '일루서니스트' and '썸다' with showtimes and prices.